

보도시점 2026. 5. 9.(토) 조간
2026. 5. 8.(금) 12:00

배포 2026. 5. 8.(금)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 DNA로 가족 찾고, 영상으로 마음 열고 입양 현장 바꾼 주역들 한자리에 -
- 입양연구자이자 입양부모인 권지성 교수 등 입양 유공자 15명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제21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9일(토) 오전 11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제8조)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함

이날 기념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표어 아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세상에 나아간다는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 어린이로 구성된 ‘이스턴 합창단’ 과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의 축하 공연, 입양의 날 유공자 포상식, 따뜻한 빛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밝혀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응원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공자 포상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책 및 국내 입양 활성화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입양아동 발달

중단연구(2006~2020)를 공동 수행하는 등 입양 관련 다수 연구에 참여해 온 입양연구자이며, 2명의 입양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입양부모인 동시에 2012년부터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로 활동하며, 입양 정책, 실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입양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4인(단체 포함)에게 수여된다. 혼혈 한국입양인인 김캐서린(Katherine Kim Bradtke)님은 DNA 기반 가족찾기 비영리단체 ‘325KAMRA’를 설립·운영하여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결합을 통한 입양인의 권리 회복과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하이머스타드’는 입양 관련 콘텐츠로 누적 조회수 4,313만 회 이상을 달성하였다. 영상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보급하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참여자의 73%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등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이병훈님은 입양부모로서 모범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입양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입양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반순범님은 국내입양인으로서 입양가족 자조모임에 20년 이상 참여하고, 입양기관 봉사활동과 입양 청소년 캠프 참여를 통해 청소년 입양인 멘토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아울러, 국내입양인으로서 입양 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당사자 중심 멘토링 모델 정착에 기여한 류이원님,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하고, 가정위탁 활동을 병행하며 입양 인식 개선 및 아동 권익 보호를 실천한 노은영님 등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작년 7월 입양 절차 전반을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입양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적 입양체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입양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말하며, “입양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개요
 2.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유공 포상자 명단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4.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요약)
 5. 2025년 국내·외 입양통계

담당 부서 <총괄>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정책팀	책임자	팀 장	윤장열 (044-202-3550)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044-202-3553)
<아동권리 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한명애 (02-6454-8600)
		담당자	부 장	황정아 (02-6454-8601)



① 행사명 :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식

- 일 시 : '26. 5. 9.(토) 11:00~14:00
- 장 소 :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서울 용산구 소재)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슬로건 :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 참석자 : 입양가족, 유공자*, 관련 단체 등 450여 명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4) 및 장관 표창(10)

② 행사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1:00~11:05	5'	식전 축하공연	이스턴 합창단
11:05~11:13	8'	개회선언, 국민의례, 애국가	
11:13~11:15	3'	주제 영상 상영	
11:15~11:32	17'	기념사, 환영사, 축사	
11:32~11:52	20'	유공자 포상수여 및 기념촬영	포상 및 훈격별 기념 촬영
11:52~12:22	30'	축하공연	◦ 합창단: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 공연: 극단 메이트(마임극)
12:22~12:25	3'	입양의 날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	
12:25~12:30	5'	폐회식	
12:30 ~ 14:00	90'	중식	

* (식전 및 부대행사) 가족사진관 등 가족 체험 프로그램(10:00~14:00)

□ 정부포상 수상자 : 5명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4)

훈격	성명	주요 공적
< 대통령 표창 >		
대통령 표창	 권지성(1971년생)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입양연구자로 활동하며, 입양아동 발달 중단연구(2006~2020) 공동연구 14년 수행, 보건복지부·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 등 입양관련 과제 다수에 참여하고, 입양 관련 논문 38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 - 또한 2007년과 2013년 입양한 자녀 2명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동시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로서 입양가족 캠프·부모교육·세미나 등에서 특강 및 교육 지원을 지속하여 입양정책·실천·공동체 발전에 기여
< 국무총리 표창 >		
국무 총리 표창	 김캐서린(1957년생) 前325감라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혈 한국입양인으로서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부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DNA 기반 가족찾기 비영리단체 KAMRA를 설립·운영하여 기록 부존재로 단절되었던 입양인과 친가족의 재결합을 실현해왔음 - 또한, 과학적 방법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입양인의 권리 회복과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
국무 총리 표창	 하이머스타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하이머스타드'를 운영하며 입양 인식 개선 콘텐츠로 누적 조회수 4,313만 회(롱폼 897만, 숏폼 3,326만)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영상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보급하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참여자의 73%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성과를 거둠

훈격	성명	주요 공적
국무 총리 표창	 이병훈 (1980년생) 국방부 육군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입양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모범적인 모습과 남다른 육아 방침 등을 통하여 아이를 훌륭히 키우고 있으며 입양의 날 행사 등 입양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하였으며 주변에도 입양에 대한 조언과 과정 등을 통하여 입양의 편견과 담을 허무는 데 노력함
국무 총리 표창	 반순범 (2002년생) 신촌세브란스병원 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입양인으로서 건강한 입양가정을 만들기 위해 공개입양을 실천하였으며, 입양가족 자조모임 20년 이상 참여하여 후배 입양인들의 모범이 되었고, 청소년기에는 성가정입양원 봉사활동과 입양청소년 캠프에 참여하여 입양인 정체성을 확립함 ▪ 성인이 되어 토크 콘서트, 방송 등에 출연하여 안전한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며 입양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함 ▪ 현재는 국내 입양인 연대와 청소년 입양인 멘토로 활동하여 후배 입양인들의 입양 정체성 확립과 입양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

□ 장관표창 수상자 : 10명

훈격	성명	주요 공적
< 장관 표창 >		
장관 표창	노은영(1974년생) (입양부모)	○ 2013년 결혼 이후 입양을 가족의 핵심 가치로 삼아 2016년 첫째 딸과 2019년 둘째 아들을 공개 입양하고, 입양 인식개선과 경험 공유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 2022년부터는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며 후견 및 향후 입양 준비를 통해 아동의 권익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함
장관 표창	윤미영(1976년생) (한국입양홍보회 강사)	○ 2014년부터 입양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2016년 인천 남부지역 대표, 2019년 인천지역 대표로서 지역 입양가족 모임을 지속 기획·운영하며 코로나 이후 재개된 대면모임을 체계화해 약 40여 가정이 함께하는 안정적 공동체를 구축·활성화하였음 - 또한 2018년 반편견입양교육 강사 양성 수료 후 약 9년간 교육 현장에서 665회 이상(누적 13,500명 대상) 입양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 완화와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
장관 표창	백유신(1972년생) (양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시설장, 입양부모)	○ 양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시설장으로 아동권익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양 부모로서, 세 자녀를 출산하고 2025년 6월 넷째 자녀를 입양한 이후 지역사회 내 입양가정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정보 교류에 앞장서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공개 입양문화의 정착에 기여함
장관 표창	류이원(1998년생) (개운중학교 강사)	○ 입양 당사자로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봉사활동을 했고, - '루다캠프' 4회 기획·운영 및 '루다밴드' 결성을 통해 입양 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당사자 중심 멘토링 모델을 정착시켰으며, 3년간 다문화 아동 대상 교육 봉사를 통해 입양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아동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함
장관 표창	김예린(2007년생) (신안산대학교 학생)	○ 입양 당사자로서 지역 입양 가족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여 후배 입양인 멘토링과 입양가정 지지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방송·공공교육 콘텐츠·아동 위원 활동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입양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편견 완화에 기여
장관 표창	정미경(1980년생) (아동권리보장원)	○ 2021년 4월부터 입양업무를 수행하며 아동중심 예비양부모 교육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기획·운영하였으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 전·후 현장 간담회, 매뉴얼 및 조사가이드 마련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입양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에 기여

훈격	성명	주요 공적
장관 표창	김혜원(1989년생) (아동권리보장원)	○ 2018년 10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에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기여함
장관 표창	이윤희(1983년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민간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25.7.19.) 시스템 구축사업의 실무자로서, 부재했던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적기 개통으로 입양아동의 안전·절차의 투명성, 관리 감독 강화에 기여함
장관 표창	이은미(1974년생)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임용된 이후,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중심의 입양 결정 및 입양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복리 증진에 기여함
장관 표창	이인선(1971년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양육상황 점검, 입양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분기별 지도 점검,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지원사업, 입양불가판정을 받은 아동의 공공후견인 진행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2022. 6. 13. 마포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에 발령받아 입양대상아동의 안전보호·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함

□ **추진 배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13) 이후 10년만에 비준을 위한 **입법***(’23.7.18)
→ 아동 입양은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25.7.19.시행)

*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 법 시행에 따라 헤이그협약 비준 절차도 완료하여 ’25.10.1일부터 발효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담당

(개편) 민간 입양기관은 업무 종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양 결정·관리

-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가 결정**, 이후 입양이 완료될때까지 **지자체가 보호**(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하며 **양육상황 점검**

* 다만, 입양대상아동 중 국제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결정

- **예비입양부모**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에 신청, 복지부(위탁 : 대한사회복지회)는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방문·대면) 실시

- **예비입양부모 자격 및 아동-양부모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결연 후 최종 입양허가**는 법원이 결정, 필요 시 허가 전 임시양육 결정

-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사후관리**는 복지부(위탁: 대한사회복지회)가 대면 수행

- **국제입양***은 복지부(보장원)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수행

*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아동 입양도 관장

< 공적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 >

절차	보호대상 아동결정	양부모 신청·상담	입양 전까지 보호·후견	양부모가정·조사 (보고서 작성)	양부모 적격 및 결연심사	법원허가	사후관리
개편 전	시군구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가정법원	입양기관
개편 후	시군구	복지부 (보장원위탁)	시군구	복지부 (민간위탁)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보장원)	가정법원	복지부 (보장원·민간위탁)

□ **현황**

- 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예비양부모 신청이 집중된 가운데, 순차적 절차 운영과 교육·조사 수행여건 제약으로 일부 속도가 더딘 상황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현 시점에서의 주요 병목발생 요인(예비양부모 교육, 가정조사) 해소
- ▶ 각 입양절차를 점검하여 필수 절차는 충실히, 행정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

- ① (신청방법)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 제고
- ② (교육확대) 입양 기본교육을 매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회 확대(‘26.4월)
- ③ (조사인력 확충) 위탁기관 가정환경조사 인력의 단기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시적 대기 상황 해소(재정당국과 협의 중, ‘26.3월~)
- ④ (분과위 운영) 예비양부모 자격·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월 1회→2회 확대하고,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 우선심의, 결연 상정방식* 개선
* (기존) 보호조치 순 상정 → (개선) 시설 아동 등 아동의 상황 우선 고려 상정
- ⑤ (결연확인서) 법원에 제출할 기본서류인 양측 결연 수용의사 확인자료를 예비양부모 희망시 아동과 첫만남 이전 전달(‘26.4월)
- ⑥ (법원단계 입양절차)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공유 및 개선사항 지속 논의
- ⑦ (진행상황 안내)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입양처리 단계의 투명성 강화(4월 말 오픈 예정)
- ⑧ (인력 확충) 입양절차 개선에 대응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인력 추가 확충 추진

붙임 5

2025년 국내·외 입양 통계

1 연도별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4년 이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50,540	244,543	1,057	880	863	681	704	492	415	324	229	212	140
국내	81,952 (32.7%)	78,405 (32.1%)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226 (54.5%)	182 (56.2%)	150 (65.5%)	154 (72.6%)	116 (82.9%)
국외	168,588 (67.3%)	166,138 (67.9%)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189 (45.5%)	142 (43.8%)	79 (34.5%)	58 (27.4%)	24 (17.1%)

2 입양아동 발생사유

(단위 : 명)

연도	계	미혼모(부) 아동(혼외자포함)	유기아동	기타(보호출산 포함)
2023	229	167 (72.9%)	54 (23.6%)	8 (3.5%)
2024	212	172 (81.1%)	35 (16.5%)	5 (2.4%)
2025	140	90 (64.3%)	29 (20.7%)	21 (15.0%)

3 국내입양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연도	계	성별		연령						
		남	여	1세 미만	1세이상~ 2세미만	2세이상~ 3세미만	3세이상~ 4세미만	4세이상~ 6세미만	6세이상~ 12세미만	12세이상
2023	150	61	89	75	48	10	8	8	1	-
		(40.7%)	(59.3%)	(50.0%)	(32.0%)	(6.7%)	(5.3%)	(5.3%)	(0.7%)	-
2024	154	76	78	70	67	5	5	3	4	-
		(49.4%)	(50.6%)	(45.5%)	(43.5%)	(3.2%)	(3.2%)	(1.9%)	(2.6%)	-
2025	116	52	64	33	57	8	3	6	7	2
		(44.8%)	(55.2%)	(28.5%)	(49.1%)	(6.9%)	(2.6%)	(5.2%)	(6.0%)	(1.7%)

4 국제입양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연도	계	성별		연령						
		남	여	1세 미만	1세이상~ 2세미만	2세이상~ 3세미만	3세이상~ 4세미만	4세이상~ 6세미만	6세이상~ 12세미만	12세이상
2023	79	53	26	-	64	12	-	3	-	-
		(67.1%)	(32.9%)	-	(81.0%)	(15.2%)	-	(3.8%)	-	-
2024	58	42	16	1	47	8	1	1	-	-
		(72.4%)	(27.6%)	(1.7%)	(81.0%)	(13.8%)	(1.7%)	(1.7%)	-	-
2025	24	21	3	-	18	5	1	-	-	-
		(87.5%)	(12.5%)	-	(75.0%)	(20.8%)	(4.2%)	-	-	-